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관리 ‘맞손’

임실군·임실시니어클럽 업무협약 체결... 계절근로자 운영 점검반 6개반 편성 운영

임실군이 효율적인 계절근로자 운영 점검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집중 점검을 위해 임실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간 계절근로자 배치 후 정기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 준수사항을 점검하고, 고충 상담 등을 진행해 왔다. 매년 계절근로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업무가 과중 되면서 자칫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한 점검이 소홀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번 임실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통해 행정업무 부담을 감소시켜 계절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니어클럽 계절근로자 운영 점검반은 12명으로, 2인 1조 6개반으로 편성되어 운영된다. 농가에 사전 연차 후 방문하여 고용주 준수사항(임금 지급 및 인권 보호 등)과 근로자 준수사항(작업 지시 이행 및 적정 근무처 근무)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임실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집중 점검을 위해 임실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점검 내용을 토대로 군은 문제 발생이 예상되는 농가 및 근로자에 사전 조치를 취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267명의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212명의 근로자가 입국해 농가 일손을 돕고 있다. 심 민 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

해 계절근로자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충 및 민원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과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통해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공약 이행 순항

민선 8기 공약 평균 이행률 88.3% 기록

최영일 순창군수의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이 88.3%를 기록하며 지난해 12월 말 대비 공약 이행률과 달성률이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5개 분야 79개 공약 사업 중 53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26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의 진행 정도를 종합한 평균 이행률은 88.3%로,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전국 평균 34.3%를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 기준에 의거한 민선 7기 자치단체장 평균 공약 이행률이 71.7%인 점을 고려하면, 순창군의 88.54% 이행률은 민선 8기 입기가 1년 2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매우 높은 기록으로 평가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노인 일자리 3,000개 달성이 1분기 완료 사업으로 전환됐으며, 이 외에도 청소촌 복합문화공간 구축, 순창군 공공임대주택 건립, 경천·양지천 친수 명품하천 조성사업 등이 지난해 말 대비 이행률이 꾸준히 향상된 주요 사업으로 꼽혔다. 군은 올해 공약 달성률을 75%로 설정하고, 연말까지 7개 사업을 추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공약 관리에 대한 점검과 피드백 과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공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최영일 군수는 “현재의 이행률에 만족하지 않고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공약을 완수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 부서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과의 약속 실현을 위해 함께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심민 임실군수, 군관리계획 재정비 현장 행정

심 민 임실군수가 최근 임실군 군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주요 현장을 찾아, 불합리한 토지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행정은 책상 위 보고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실질적 리더십 행보로 평가받고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되는 중기계획으로, 상위계획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지역여건의 변화를 수용해 도시공간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이다. 특히, 이번 재정비는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임실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적 전환점으로, 현장의 목소리와 실



남원시, 춘향제 통해 착한 먹거리 문화 조성

남원시는 지난해 ‘만원 이하 착한 먹거리’를 개발해 운영한 결과, 전년 대비 방문객이 3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를 계승해 올해도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합리적인 가격의 먹거리 제공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특히 춘향제 행사장 내 ‘더본 바비큐존’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먹거리존으로, 올해 ‘더본 바비큐존’은 지역상생과 축제 참여 확대를 위해 무료 시식 이벤트를 운영했다. 춘향제 행사장 내에서 구매한 영수증 3장을 제시하면 바비큐 한 접시를 무료로 제공해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 연장과 소비 유도도 기대되고, 청결 관리와 운영 시스템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먹거리 공간을 조성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와운마을 주민들, 비상소화장치로 천년송 지켜내

산불 발생 초기 진화 성공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지난 1일 새벽 2시 28분경,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나, 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초기 진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고 밝혔다. 당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자칫하면 산불이 크게 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와운마을 이장(이장 공성훈)의 신속한 마을방송을 통해 주민 전체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되었고, 주민들의 발 빠른 초동 대응과 협력으로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년송도 무사히 보호될 수 있었다.



이후 소방대원과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현장에 투입되어 남은 불씨를 철저히 정리하며 완전 진화를 이뤄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지리산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와운마을로, 주변에는 천연기념물인 ‘천년송’이 자리하고 있으며,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는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해 산불이 확산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산불 초기 진화에 사용된 비상소화장치는 2019년, 국립공원 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남원소방서가 설치한 시설로, 마을 내 2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남원소방서는 해당 장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용법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이번 사례는 그 교육 효과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주민들은 장비에 대한 높은 숙련도와 경험을 바탕으로 침착하고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자치도·남원시, 바이오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는 지역 화장품 및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프로그램 안내와 사업 참여 확대 및 도내 관련 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사업 설명회 및 네트워크 교류

회(이하 설명회)를 남원시 바이오산업연구원(원장 이영철)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미세 유망 바이오 소재를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역거점 활성화 및 사업화 기술지원 △화장품산업 혁신 지원사업 △화장품

기업 수출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온라인 플랫폼(nrbiz.kr) 이용 안내 △남원·지리산권 자원식물 활용 화장품원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내용을 제공했다. 특히, 기존 화장품기업을 포함, 바이오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 향후 사업화 혁신 성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순창군, 지적 재조사 미청구 조정금 찾아주기 적극 홍보

순창군이 ‘지적 재조사 미청구 조정금 찾아주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5월 완료된 운남·용산·금월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해, 아직 청구되지 않은 조정금을 군민들이 손쉽게 수령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 중인 국책 사업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정금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되며, 지적 재조사 결과 면적이 증가했을 경우 소유자가 조정금을 납부하고, 면적이 감소하면 소유자가 조정금을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구되지 않은 조정금은 총 155건, 약 3억 6,200만 원에 달하며, 주요 미청구 사유로는 관외 거주, 우편물 미수령, 소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 절차 지연 등이 있다. 이에 군은 만화포 제작한 안내문, 공문, 전화, 문자(SMS) 등을 통해 조정금 수령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국립임실호국원, 무연고 국가유공자 3위 합동안장식

국립임실호국원은 호남지역 공설봉안시설 무연고실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3위에 대해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안치된 무연고 국가유공자는 전주, 순천, 목포지역 공설봉안시설에 안치됐던 분으로 6.25참전유공자 1명과 월남참전유공자 2명이다. 합동안장식은 김석기 광주지방보훈청장의 집례로 주관했으며, 군·경 대표 및 전북 보훈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회, 조사, 종교의식, 헌화 및 분양, 조총발사를 거쳐 국립임실호국원 제2충령당에 새로 영면했다. 현재 국립호국원은 무연고 유공자 116분이 영면에 있으며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그분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제2충령당에 별빛 추모실을 운영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